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7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3) 철회 동 의 의 건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철회 동 의 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3) 철회 동 의 의 건 1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철회 동 의 의 건 1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5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철회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 철회 동의를 먼저 의결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광위원장은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정부경영평가 수검을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간사 간에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3) 철회 동 의 의 건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철회 동 의 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법안 철회 동 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황운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맹성규 예.

○황운하 위원 오늘 주 안건이 추경예산안 처리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부득이 짧게 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토위의 여야……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이것 법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황운하 위원 시간을 주실래요?

○위원장 맹성규 예, 이것 지금 순서가 잘못하면 엉킬 것 같아요.

○황운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제가 하고 시간을 드릴게요.

○황운하 위원 예, 이따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아까 황 위원님부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황운하 위원 오늘 추경예산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야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주에 국토소위할 때 이종욱 소위원장님께서 우리 법안이 한참 밀려 있으니까 매주 소위를 열어 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오늘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위가 열릴 때 제가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안건 심의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위원장님께서 처리에 속도를 낼 테니, 소위 매주 열어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도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정부 측 입장을 대신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고 여야 지도부가 한결같은 똑같은 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데도 여야 국토위 간사님들은 왜 소위를 빨리 열지도 않고 또 처리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제가 어저께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었는데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위를 빨리빨리 열든지 또는 소위에서 안건 상정 순위를 좀 당겨 가지고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여기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이 한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부터 하세요.

○복기왕 위원 담당 소위원장……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열겠든지 안 열겠든지, 먼저 하셔야지.

○복기왕 위원 행정수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정법률안도 거기에 있는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실무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이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순서를 앞당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우리 9·7 대책 후속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맨 앞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맨 앞으로 끌어올려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시급성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한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법안소위를 가급적 자주 열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가 추경 의결을 위하여 가동 중이고 또 대정부질의도 있고 해서 도저히 저희 위원님들도 시간이 안 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날짜도 복기왕 간사님한테 하나 더 잡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번 정도는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급한 법도 많고 이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협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 행정수도 특별법 이외에 다른 법들도 나름 시급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급적 소위를 자주 열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찬찬히 진행하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순서를 바꿀지는 한번 복기왕 간사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나중에 황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논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황운하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논의가 진행됐는데 저희 임기가 5월 30일까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 30일이고 5월 달 지나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5월 달은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지원체제 이라서 국회 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법을 제·개정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을 뒷받침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처리해야 될 법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들어와 있는 법을 다 통과시키고 가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간사님들은 좀 더 협의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필요하면 5

월 중이라도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임기를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될 때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데 회의 자체를 안 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1주마다 한 번씩 열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정을 다 따지면 결국 또 못 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면 화요일 날 이 시간은 소위다 이렇게 딱 정해 주고 그걸 꼭 지키도록 해야지 위원들 개별적 사정 다 반영해 가지고 날짜 찾고 날짜 찾고 그러다 못 하고 그러다 못 하고, 국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두 간사님은 소위 날짜만이라도 주 1회 픽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황운하 위원**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황운하 위원** 진짜 그렇게 좀 합시다.

○**위원장 맹성규** 두 분 협의하셔서 날짜 픽스하세요. 교통소위도 마찬가지로, 국토법안 소위도.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네 번? 5월 중순까지 한다고 쳐도 한 네 번 정도 그리고 전체회의 한 번 하면 종료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회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와 교통 소위 상반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 전체에 대해서 상정된 것 이외에도……

○**위원장 맹성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릴게요.

○**김희정 위원** 전문위원들이 한번 다 보고를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상반기에 맡은 임무는 다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정안 처리 중이라도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복기왕 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겠지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적어도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다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현재 검토가 안 된 법안들, 이게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 민원성 법안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해 주면 좀 더 속도감 있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급한 법안들 때문에 밀려서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국토부 누구인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북기왕 위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누구인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업무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남겨 있는 법안의 현황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6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전용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6일과 7일 총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기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고유가 부담 완화 및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66억 원, 청년 월세 지원 650억 원, 전세버스산업 위기 극복 지원 459억 3800만 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63억 등 총 1985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용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이번 추경에서 전세버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버스업계의 경우에 지입업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거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지원금이 법인에만 지급될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인 지입차주에게는 지

원금이 전달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2021년도 전세버스 지원금으로 525억 원, 2022년도에 1575억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업체에만 업계에만 지원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입차주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었었고 또 부정수급 문제도 상당히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입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번이라도 분배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서 가지고 사업자연합회도 좀 만나시고 지입차주연합회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만나서 가지고 좀 분배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 실컷 수령하면 뭐 합니까, 분배가 잘 돼야지.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는 2차관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차량별로 하면 돼.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지원방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게 일견 다 이유들이 있을 건데 만나서 회의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별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추가적으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동의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안 처리 및 계류 현황 자료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국토법안소위는 920건이 회부됐는데 163건이 처리되고 78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안소위는 518건이 회부돼서 168건이 처리돼서 374건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미상정된 게 있고 소위 계류가 된 게 있습니다. 최소한 소위 계류가 된 국토법안 721건하고 교통법안 342건은 처리가 아니라 논의는 진행하셔야 이게 명분이 있는 거지 이대로 또 뒤로 넘기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안소위하고 좀 속도감을 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건하고 374건 이에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안태준 엄태영 엄태영 윤종오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4인)

윤재옥 윤종균 이진태 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김태병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직무대리 문희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청장직무대행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현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 김웅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안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정왕국